

#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

김미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

## 주요내용

- ▶ 2017년 10월 5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는 섬유봉제·신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018년 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1.1% 인상한 170달러로 확정함.
- ▶ 섬유봉제·신발 산업은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·고용 산업으로 정부는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당초 계획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확정된 것으로 보임.
- ▶ 캄보디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조치와 함께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주변국 부상을 고려할 때 캄보디아 섬유봉제·신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

## 1. 이슈 현황

▶ 2017년 10월 5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는 섬유봉제·신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018년 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1.1% 인상한 170달러로 확정함.

- 확정 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섬유봉제·신발 기업 천여 개의 근로자 약 백만 명에게 적용될 예정임.<sup>1)</sup>
- 정부 대표 14인, 고용주 대표 7인, 노동조합 대표 7인으로 구성된 노동자문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고용주 대표는 161달러, 노동조합 대표는 176.25달러를 제시하였고 정부는 162.67달러를 권고해왔음.
- 노동자문위원회는 165달러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으나 훈센 총리가 2016년과 같이 5달러 가산을 지시하여 2018년 최저임금이 170달러로 확정됨.

1) 캄보디아는 법률상 섬유봉제·신발 기업에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, 이외 산업의 기본급 산정 시 섬유봉제·신발 산업의 최저임금이 참고로 적용되기도 함.

## 2. 원인과 분석

▶ **섬유봉제·신발 산업은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·고용 산업으로 정부는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당초 계획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확정한 것으로 보임.**

□ 캄보디아의 2016년 의류·신발 수출액은 70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74%를 차지하였으며 섬유봉제·신발 산업이 총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%임.

- 캄보디아 섬유봉제·신발 산업은 원부자재와 기계 설비를 수입하고 저임 노동력만을 투입하여 단순 가공하는 산업으로, 낮은 임금이 최대 경쟁력임.

그림 1. 캄보디아 의류 및 신발 수출 추이

(단위: 십억 달러(좌), %(우))



주: HS 코드 61~62(의류), 64(신발) 기준.  
자료: UN Comtrade(검색일: 2017. 10. 26).

그림 2.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계획 및 실제 추이

(단위: 달러)



자료: JETRO. 2014. 「2014年から5年連続の最低賃金引き上げ方針を発表」

□ 이번 인상은 2013년 노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인상 계획에 따른 것으로, 2013년 12월 노동자문위원회는 최저임금을 2013년 80달러에서 2018년 160달러로 2배 인상할 것을 밝힘.

- 2013년 총선에서 최저임금은 주요 이슈 중 하나였으며 최저임금 150달러로의 인상을 공약한 구국당은 27년간 집권해온 인민당과 득표율 격차를 4%p까지 줄임.<sup>2)</sup>
- 2013~14년 구국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였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구국당이 수십만 명 규모의 시위를 벌여 시위진압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.

□ 최근 구국당 대표의 체포와 언론 통제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.

- 2017년 인상률 11.1%는 3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확정된 최저임금 170달러는 노동자문위원회의 2013년 발표안보다 10달러 높은 액수임.

2) 2013년 총선에서 총 123석 중 인민당(CPP)은 68석, 구국당(CNRP)은 55석을 차지하였고, 인민당은 2008년 총선에 비해 의석수가 22석 감소한 반면 구국당은 26석 증가함.

- 2017년 8월 이후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외 일련의 혜택을 부여해왔음.
- \* 근로자 의료보험비용 전액 사측 부담, 시내버스 2년간 무료 이용, 주립 병원 무상 진료, 출산 전후 휴가 시 통상 임금의 120% 보장, 임대인에게 최저임금 인상 이후 관례적 월세 인상 금지 권고 등

### 3. 전망과 시사점

▶ 캄보디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조치와 함께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주변국 부상을 고려할 때 캄보디아 섬유봉제·신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

-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섬유봉제·신발 기업의 선납 소득세와 수출관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함.
- 태국 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수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나 임금수준 격차는 아직 커 캄보디아의 임금은 매년 10%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<sup>3)</sup>
- 한편 저임 노동력이 풍부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새로운 의류 생산기지로 부상 중이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임금 격차 역시 줄어들고 있음.
  - 2016년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중국 섬유봉제 기업 200여개가 미얀마에 진출하였으며 미얀마의 의류 수출액은 2011년 5억 달러에서 2016년 16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함.
  - 베트남은 아세안 후발가입국 중 정치안정성과 인프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2018년 베트남 하노이, 호치민 근교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6.1% 증가한 약 175달러임. **EMERiCs**

#### 참고문헌

- ILO, Reuters, EIU, Radio Free Asia, JETRO

#### 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3) JETRO. 2017. 「2018年の最低賃金、11.1%増の月額170ドルに」.